



긴장된 열흘간의 JCI 모의 조사(Mock Survey), 성료

내년 JCI 재인증 실전 대비 철저한 준비 및 검증 실시 개선점 철저히 보완해 환자안전이 최우선인 병원 될 터



고대 안암병원의 JCI 모의조사(Mock Survey)가 실시됐다. 내년에 있을 JCI 재 인증을 대비해 실시된 이번 모의조사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약 열흘간 진행되었다.

이번에 모의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컨설턴트는 의사 Richard Wright, 간호사 Hyunok Do, 행정가 Ginger Whitlock 등 총 세명이었으며, 조사는 JCI 4판 개정판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JCI 인증기준집은 3년마다 개정되며, 2011년부터는 4판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4판 개정판은 세계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환자안전목표(IPSP),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 외래환자의 정확한 요약정보제공, 의료진 의견에 반하여 떠나는 환자의 후속관리 등 환자의 안전부분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표를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조사를 마친 후 JCI 컨설턴트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는 “고대 안암병원을 조사해 봤는데 의료진을 포함한 전직원 모두가 좋은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아 큰 감명을 받았다. 안암병원은 JCI 재인증 받는 병원으로 내년도에 방문하게 되는 조사위원들은 안암병원을 질향상, 환자안전에서 전문병원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이며 질향상, 환자안전부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지금까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여 질향상과 환자안전이 안암

병원의 안전문화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창덕 고대 안암병원장은 “JCI 모의 조사를 위해 전직원들이 모두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컨설턴트들이 병원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인 진료과정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뿐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JCI 컨설팅 일정이 긴 시간이기도 했으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개선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안암병원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병원의 JCI 모의조사를 위해 열심히 조사해 주신 3분의 컨설턴트분들과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해준 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009년 7월에 JCI 인증을 획득해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Global Safety, KUMC)”으로 공식인정 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부터 ‘JCI 재인증 준비 TFT 발대식’을 갖고 JCI 재인증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화발전기금기부

11.03.08	한국 RMS(주)	₩ 4,200,000
11.03.11	한성테크	₩ 2,500,000
11.03.21	최재욱	₩ 8,400,000
11.04.01	김숙	₩ 20,000,000
11.04.08	이병립	₩ 1,000,000
11.05.02	(주)맥스바이오텍	₩ 10,800,000
11.05.09	조진형	₩ 500,000
11.05.18	최건업	₩ 5,000,000
11.05.20	정기오	₩ 500,000

11.05.25	김용해	₩ 300,000
11.05.30	교우회의전원장학금	₩ 12,500,000
11.05.19	김성배	₩ 500,000
11.05.19	백두권	₩ 10,000,000
11.06.02	박시영	₩ 5,000,000
11.06.02	김재홍	₩ 10,000,000
11.06.01	의과대학29회동기회	₩ 15,000,000
11.06.15	권오경	₩ 300,000
11.07.14	박창현	₩10,000,000

* 기간 : 2011년 03월 08일~2011년 07월 14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스페셜 리포트 1]

[스페셜 리포트 2]

고주파 온열치료, 제 4의 암치료법!

高大, 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작용 없고 효과 높은 암 치료방법’ 본격논의



세포치료센터(센터장 조태형, 신경외과 교수)가 6월 28일(화) 오후 4시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고주파 온열치료를 이용한 암치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고주파 온열치료, 제 4의 암치료 방법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 온열치료-새로운 차원의 암치료 ▲ 폐암의 온열치료 ▲ 온열치료의 임상적용 ▲ 유방암의 비수술적 치료법 ▲ 온열이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채로운 연제가 발표됐다.

최신 온열치료의 선구자인 독일의 샤스(Szasa) 교수와 일본의 치바암연구센터 나가세(Nagase) 교수, 고대 안암병원 유방센터 이은숙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의학자들이 다수 참여한 이날 심포지움은 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물론 종양 치유율을 높이는 최신 치료방법과 첨단의료기기 동향 등을 한 번에 조감해 의사와 연구원, 환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받았다.

조태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온열치료의 우수한 효과는 오래전부터 다수의 연구와 임상상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최신 정보와 다양한 임상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의사와 연구자, 환자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열치료는 환자에게 고주파를 투과시켜 전기장에 의해 체내에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암 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세포 주변 온도를 42도 정도로 높여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방법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췌장암 등 모든 고형암 치료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전이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구토나 식욕부진, 체중감소, 소화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과 탈모, 팔다리저림 등의 합병증이 없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제 4의 암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진료예약 | 1577-0083, 세포치료센터 | 02)920-6927

원활한 진료협력 시스템 구축!

진료과별 연수강좌 통해 최신지견 나누고 신뢰 쌓아
지역병의원들 직접 찾아다녀



진료협력센터(센터장 이기형)가 원활한 진료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병의원간의 빠르고 정확한 환자의 진료회송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먼저 지역병의원과 함께하는 진료과별 상반기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상반기 연수강좌는 고대 안암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각 진료과별 지역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4월 21일 이비인후과를 시작으로 정신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외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총 9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3개월간 진행됐다.

또한, 고대 안암병원 각 분야별 교수들이 질병별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실시하고 종합병원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수한 환자사례들이 폭넓게 소개해 지역병원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연뿐 아니라 지역병의원과 고대 안암병원 간 원활한 진료회송 및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재 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고찰해 보는 간담회 시간도 가졌으며, 의료진 간의 교분을 다지기도 했다. 이번 연수강좌에 참여한 한 지역병원장은 “최신지견을 배우는 것과 함께 내 환자를 맡길 담당 교수를 직접 만나보니 더 큰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서로 활발한 교류를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연수강좌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병의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원활한 진료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기형 센터장, 김홍석 고객센터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난 6월말부터 160여개의 지역병의원을 직접 방문하며 진료회송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회송이 상호간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긴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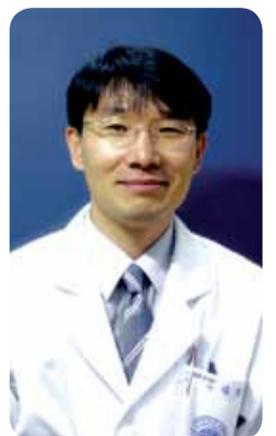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함께하는 1분 건강 _당뇨병 예방하려면?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가 SBS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었던 짧고 재미있는 건강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SBS 정보센터’를 통하시면 무료로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은 두 명 중 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냥으로 먹고 살던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서 살기 시작한 후에 지나치게 잘 먹고, 너무 적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반면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아미시 공동체는 당뇨병의 무풍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자동차 등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를 짓느라 하루 열 시간 이상 육체 활동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식단을 이용하여 적당히 먹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계단을 이용하는 등 문명의 유익을 조금 적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누리고 많이 나누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료예약 | 1577-0083, 외래 | 02)920-5421



동아일보 - 고대안암병원 공동기획

장기이식, '기적' 을 일궜다

신장이식 수술 두 번 받은 환자에 췌장이식 고려대 안암병원 국내 첫 성공, 생체이식기술 발전 기폭제... 몽골 30대 공무원에 시술

《신장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몽골인 티메도르 간바트 씨(33)는 올 2월 한국에서 세 번째 수술인 췌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췌장이식은 원래 장기이식 분야에서도 매우 까다로워 국내에서 5개 병원 정도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의료진은 기능이 거의 망가진 간바트 씨의 췌장을 떼어내고 건강한 장기로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세 번째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이식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이번 성공은 국내 장기이식발전에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난도 수술을 계기로 국내 장기이식술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박관태 고려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팀이 뇌사자의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췌장이식으로 얻은 새 생명, 탈감작 요법이 일등공신
간바트 씨는 이미 중국에서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이 장기가 거부반응을 일으켜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생체신장이식 수술을 다시 받았다. 이 때문에 당뇨병 증세를 보이던 그에게 다른 장기를 새로 이식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큰 난관이었다.

장기이식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탈감작 요법이었다. 간바트 씨의 췌장이식을 집도한 박관태 고려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감작(感作)’이란 이미 몸 안에 항체가 만들

○ 내·외과 전 영역 장기이식 협력도 큰 관건

장기이식은 수술 중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뛰어난 의술이 필요하다. 국내 대형 의료기관은 소장, 폐, 심장, 간, 신장 등 5대 장기 이식에서 성공률이 높고 특히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수의 국가에서 연수를 받으러 올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장기이식 성공 경험이 많은 병원이라면 다른 수술 역시 뛰어난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기도 한다. 장기이식은 수술을 주도하는 외과와 환자를 돌보는 내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들은 현재 내·외과 분야 전 영역의 의료진이 장기이식을 위해 협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특화된 수술팀을 구성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강화한 팀워크를 통해 이식장기의 다변화와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008년 2월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선정된 고려대 안암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이 본격화한 2009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췌장 심장 간 신장 등에서 140여 건의 장기이식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해외환자 장기이식의 절반 이상이 이 병원에서 이뤄진다. 특히 한국형인공심장 H-VAD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힘쓰고 있는 고려대 한국인공장기센터 및 심혈관센터와 연계해 심장이식 분야에서도 의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턱없이 부족한 장기기증, 평균 1년 이상 대기

대형병원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분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장기이식 대기자가 많고 장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2011년 3월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는 1만8988명. 하지만 2010년 1년 동안 골수와 각막을 포함해 장기를 이식받은 건수는 3000여 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골수와 각막을 제외한 신장, 간, 췌장, 심장 등 고형 장기의 이식은 신장 1264건, 간장 1061건 등 총 2458건. 이 중 뇌사자 기증이 868건이었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건수는 1749건이었다. 장기기증자는 매년 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 현황에 따르면 기증자는 2004년 86명, 2007년 148명, 2009년 261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하지만 2009년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대기 기간이 평균 780일, 간장의 경우 평균 112일, 췌장의 경우 825일이었다.

김동식 고려대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뇌사자 장기기증 비율을 보면 미국, 프랑스 등이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5명이지만 한국은 5명도 되지 않는다”면서 “장기기증자가 늘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 의사 likeday@donga.com
진료예약 | 1577-0083, 코디네이터 | 02)920-6859

어저 이식장기에 거부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면서 “그대로 장기이식을 할 경우 이미 형성된 항체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해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탈감작 요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결국 10개월 동안 6번의 탈감작 요법을 실시해 간바트 씨 몸 안의 항체가 수그러든 이후 췌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작 외에도 췌장 이식수술을 방해하는 요인은 또 있다. 장기를 이식할 때 보통 양쪽 옆구리 부분을 통해 이식하는데 간바트 씨의 경우 이미 두 번의 이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옆구리에 새로운 혈관이 자리 잡고 있던 상태였다. 췌장을 이식할 경우 신장이식이 이루어진 부위의 같은 혈관에 또 다른 장기를 이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미세수술의 놀라운 발달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이런 난관을 뛰어넘었다.

간바트 씨는 “몽골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으로 일하는 만큼 몽골로 돌아가 한국의 뛰어난 장기이식 수준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생사를 오가는 나를 살려준 한국 의료기술과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기까지!

〈사진으로 보는 고대병원 70년〉



1990년까지 명륜동에 있었던 혜화병원

고려대학교병원은 1941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으로 출발해 몇 번의 이름이 바뀐뒤에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명명되었다. 먼저 1948년 서울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되며, 이정복 박사가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1957년에는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1967년에는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71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우석학원으로 합병함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우석병원으로 개칭되었고, 드디어 197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되며, 사람들에게 ‘고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83년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발족됨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으로 개칭했다. 결국 고려대학교병원은 숭한 통합과 화합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안암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1990년까지 명륜동에서 국내 최고의 인술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의료원 및 혜화병원 현판식 1983년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팀, 통상적으로 사용 못하는 뇌사자의 간, 적절한 환자 찾아 이식 성공! 턱없이 부족한 뇌사자 기증 간의 사용범위 넓혀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가 최근 이식에 사용될 뇌사자 간의 사용범위를 넓히는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타 병원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버릴뻔 한 간조직을 사용가능한 이식환자를 찾아 성공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뇌사

자의 간이식 대상은 보통 생명이 매우 위급한 환자에게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식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김동식 교수와 같이 이식장기를 보다 세분화 분류하여 사용하면 장기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식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

김동식 교수에게 간 이식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조병임(60세, 女) 씨. 조병임씨는 20년 가까이 B형 간염과 이로 인한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었다가, 지난 2009년 10월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했다. 대기중에 심한 복수와 간성혼수, 복막염으로 입원원을 반복했으며 결국 2010년 7월 간암 진단을 받고 색전술을 3회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자녀는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배우자는 고령으로 인해 간 기증이 불가능해 마냥 뇌사자의 간 기증을 기다리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식이 이루어진 지난 5월 24일(화)에도 조병임 씨는 심한 복수와 고열로 입원 중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자가 발생했고, 원래는 또 다른 병원의 급성 간부전으로 매우 위독한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술실 조직 검사 결과 60% 이상의 지방간 변성을 보여 위독한 환자에게는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보통 간의 경우 30% 이상 지방간 변성이 나타나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뇌사자의 간은 버려질 계획이었다.

이 소식은 우연히 고대 안암병원 간이식팀 김동식 교수에게 전해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김 교수는 즉시 해당병원으로 가서 간 조직 검사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기증자의 간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간이식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증자 간 이외의 요소, 즉 허혈시간, 수술 시간 등을 적절히 잘 조절하면 조병임과 같은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간 적출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 조병임 씨는 입원중이었고,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조병임 씨는 간이식 대기자 10순위. 이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식을 포기한 1순위의 환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정윤희 코디네이터는 국립장기기식관리센터와 공조하에 이 과정을 재빠르게 처리했다.

결국 수술이 시작되었고, 김동식 교수가 간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수술 시작되기까지 채 5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모든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행히 조병임 씨는 중환자실에서 나흘 입원했던 것을 비롯해, 수술 20일이 지난 6월 16일(목)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식과정은 매우 드문 일이다. 장기기증 수술 중 기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이식하지 못하게 된다. 뇌사자 간이식은 2008년 233건, 2009년 237건 등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이식대기자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김동식 교수는 미국 신시네티 의과대학 이식 외과 교수로 재직 당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고, 이처럼 간 이식 대상자 선별하여 이식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 이식의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담체외과 김동식 교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률은 미국, 프랑스 등이 인구 100만명 당 평균 25명을 훨씬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5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는 뇌사자가 기증한 간의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간이식을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료예약 | 1577-0083, 외래 | 02)920-5401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제5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선정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宋珍沅, 48) 교수가 신종한타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경로를 밝혀내며, 제5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자 4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상주)은 지난 8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매년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우리나라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1955년 이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등 4분야를 대상으로 총 21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식은 9월16일 학술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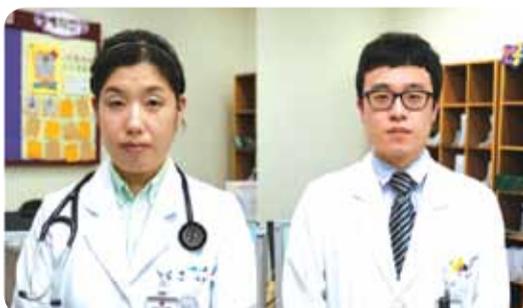
송진원 교수는 2009년 비무장지대 임진강 근처에서 잡힌 식충목(食蟲目) 동물인 우수리 딱지

(Crocidura lasiura)에서 신종 한타바이러스인 임진바이러스(Imjin virus)를 세계최초로 발견한 연구논문으로 이번에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탄강 유역에서 채집된 등줄쥐로부터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타바이러스가 1976년에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에 의해 발견된 이후 한타바이러스는 등줄쥐 등 설치목(齧齒目) 동물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새로운 임진바이러스는 기존의 모든 설치류 쥐들이 운반하는 한타바이러스들과는 유전자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약 50%에 불과하며 중화항체검사법으로도 전혀 교차반응이 없었다.

송진원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한타바이러스가 설치목 쥐뿐만 아니라 식충목 동물에 의해서도 운반된다는 것을 발견한 획기적인 연구결과이다. 또한 1976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견된 한타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쾌거이기도 하다. 

철저한 의무기록 정리의 달인 포상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6월 29일(수) 오후 4시 30분 본부회의실에서 1/4분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 전공의를 표창하고 상장과 상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표창은 2011년 1/4분기동안 재원 중 의무기록작성율, 월평균 차트 완성률, 기록충실도, 평균재원일수, 전공의 담당 환자수,

교수 서명완성률 등의 의무기록을 종합평가해 이루어졌다. 내과 나영주 전공의와 이비인후과 주영호 전공의는 성실도, 완결도, 다작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이번에 우수전공의로 선정되었다. 

시설팀 김인태 전기주임기능사, 퇴직 포상 실시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7일(월) 시설팀 김인태 전기주임기능사의 퇴직 포상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덕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은 김인태 기능사의 정년퇴직을 축하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팀 김인태(59세) 전기기능주임사는 83년 11월 여주병원으로 입사해 총 27년 5개월간 고려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해왔다. 병원은 이번 정년퇴직을 축하하며 12돈 금메달을 선물했으며, 고려중앙학원 역시 격려금을 전달했다. 

병원소식

새통영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고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7월 8일(금)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새통영병원(원장 천맹렬)을 방문하여 협력병원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김창덕 안암병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윤숙녀 고객센터부팀장, 천맹렬 새통영병원장, 김동진 새통영병원내과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력병원 체결을 계기로 새통영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은 앞으로 원활한 진료의뢰 및 회송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새통영병원은 2008년 8월에 200병상 규모로 개원했으며, MRI, CT, 진단치료내시경, 복강경수술장비 등을 갖추고 통영 주민들에게 한단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고창과 상호·교류협약 체결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병원 본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고창군과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창덕 고대 안암병원장, 이강수 고창군수, 김영희 고창군보건소장, 오양환 선운산농협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했다.

이로서 고대 안암병원은 전라북도 고창군민들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군 역시 지역 특산물의 할인 공급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서 고대 안암병원은 전라북도 고창군민들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군 역시 지역 특산물의 할인 공급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소아과학교실, 어린이·청소년 건강지킴이 70년



고려대학교 소아과학교실(주임교수 박상희)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소아과학교실은 지난 6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고대 안암병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고려대학교 소아과학 최신지견'을 주제로 기념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소아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정신과 질환, 신경학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을 실시했다. 심포지움이 완료된 후에는 소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960년 수도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전임교수로 발령받아 1987년까지 근무한 이현금 명예교수를 비롯해, 독고영창 명예교수, 김순겸 명예교수, 박상희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손창성 의무부총장이 참석해 70주년을 축하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은 1941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김덕성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소아과 병상을 운영하며 시작되어 한국 서양의료의 역사와 맥을 함께했다. 1971년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이 개설되었고, 1983년 구로병원 개원과 1985년 안산병원 개원으로 3개병원에 소아과 및 신생아실 등이 모두 갖춰지며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박상희 주임교수는 "올해는 소아과학교실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더욱 진료, 연구, 교육에 충실한 교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8회 갑상선 연수회」 성료



6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제8회 갑상선 연수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하고 대한두경부외과학회와 대한두경부중양학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정광운 교수가 총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이러한 연수회에는 이비인후과, 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이 연자로 참여해 갑상선과 부갑상선 질환의 최신지견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 암연구소병원의 이와오 스키타니 교수와 국립암센터병원의 세이치 요시모토 교수가 갑상선 암종 외과적 치료범위의 최신지견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정광운 교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갑상선질환을 교육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갑상선·부갑상선 연수회'를 개최해 전국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한양대학교와 연합하여 '고려-한양 갑상선 워크숍'으로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견고히 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임상과의 전문의가 참석하는 '갑상선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수회에는 이비인후과, 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이 연자로 참여해 갑상선과 부갑상선 질환의 최신지견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 암연구소병원의 이와오 스키타니 교수와 국립암센터병원의 세이치 요시모토 교수가 갑상선 암종 외과적 치료범위의 최신지견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검사를 해야 하나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 함께하는 병원생활칼럼〉

검사하기 싫어 병원에 다니기 싫다는 환자들도 있다. 바쁜 직장생활에 병원 다니는 것도 상사에게 눈치 보이는데 웬만한 검사는 아침 식사를 걸러야하니 짜증이 날만도 하다. 더욱이 검사날짜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그래도 검사는 해야 한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병의 진행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질병과 전쟁을 하면서 적(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간혹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오는 분도 있다. 좋은 방법이다. 믿을 만한 집 근처 의원에서 검사해 오면 서로 편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한 검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초음파나 내시경처럼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검사는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처럼

기계가 하는 검사는 의사의 숙련도와 관계없다. 그러나 기계가 하는 검사라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중요한 시술이나 치료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도 확인검사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심장이 나빠 내과 의사에게 수년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우연히 한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년간 진료하면서도 위암을 발견 못한 심장전문의의 잘못일까. 그렇다면 아무런 증상도 없는 심장병환자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권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일까.

진료현장에서 검사는 많이 할 수도, 그렇다고 적게 할 수도 없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글 |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진료예약 | 1577-0083, 외래 | 02)920-6852



[클리닉 소개]

‘피부관리실’ 오픈 ‘안면분석시스템’ 및 최신 레이저기기 도입 교수진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피부관리 서비스 실시



고대 안암병원이 7월 6일 피부관리실을 본격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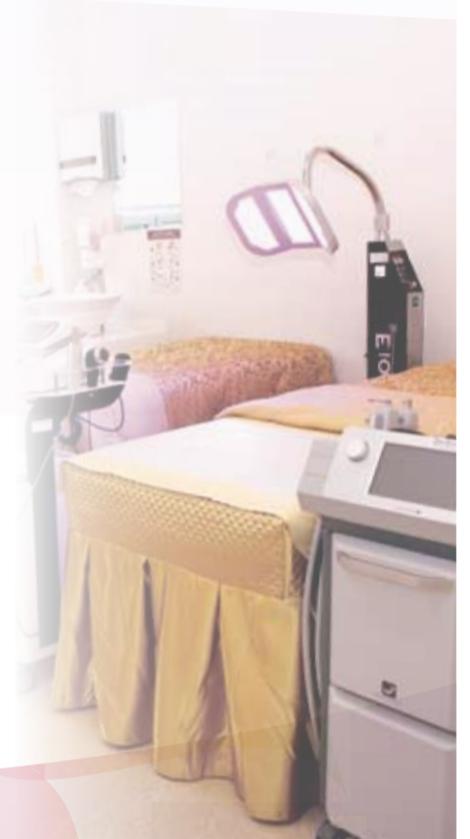
교수진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피부관리가 진행되는 피부관리실은 피부관리사가 상주해 주름, 색소침착, 여드름흉터, 기미, 오타모반, 잔주름 개선, 모공축소 등의 피부관리를 시행한다.

피부관리실은 전문가용 초고해상의 렌즈를 사용해 얼굴 전체의 분석이 미지를 추출하고 각 부위별로 자동분석하는 ‘안면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대학병원이 시행하는 피부관리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신 레이저기기를 도입해 기존의 레이저토닝 기술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피부관리실은, 안정화된 레이저 빔이 콜라겐을 자극하는 더욱 향상된 기술을 시행하고, 진피층과 표피층에 있는 멜라닌을 안전하게 파괴시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안전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제품만을 엄선했으며, 치료와 미용을 적절히 혼합한 고품격 서비스를 실시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료예약 | 1577-0038, 피부관리실 | 02)920-6415



충치도 아니고 잇몸질환도 아닌데 시큰시큰, 치아에 금 갔다!

[의학정보]

통증이 지속적이 아닌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치아균열 의심
치료 안하면 치아 쪼개져버릴수도



중계동에 사는 윤 모씨(30, 女)는 최근 음식을 씹을 때마다 가끔씩 시큰거리는 증상을 느꼈다. 그런데 증상이 일정치가 않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때는 매우 시큰거리고, 어떤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특히, 충치치료와 스켈링을 받은지 한달도 안됐던 터라 윤 씨는 충치 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치과에서 들은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치아에 균열이 생겼으니 크라운 치료로 덧씌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X-ray로도 균열된 치아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윤 씨는 의사의 권유가 못내 미더웠지만,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들은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다.

음식을 씹을 때는 분명히 시큰거리거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데 충치나 잇몸질환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통증이나 증상이 항상 지속적이지 않고 씹는 경우에만 따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과에 찾아오는 기간도 더욱 늦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밀 검사를 해 보면 치아의 오목한 부분이나 겉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증이 있지만 간헐적이고, 기본검사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아 균열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치아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단단하고 질긴음식의 섭취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지낸다면 약간의 치아의 교합(맞물림)을 조절한 후 치료를 마칠 수도 있다. 또한 균열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콤포지트 레진 등으로 채워서 증세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증세가 계속된다면 치아 전체를 덮어씌워 치료해야 한다. 임시치아를 씌운 후 증상이 호전되면 금, 도자기 등으로 치아를 씌워 통증이없도록한다.

치아의 균열은 진단이 어렵고,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언제 치아가 쪼개질 지 알 수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치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나 잇몸질환이라고 하면 환자가 쉽게 이해하고 후속치료에 동의하지만, 치아에 균열이 생겼으니 치아를 덧씌워야 한다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많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치아가 완전히 부러져버릴 수도 있으므로 치과 의사의 진단을 믿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에 금이 가는 것을 피하려면, 평소 딱딱하고 질긴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또한, 밤에 이갈이가 심하거나 이를 습관적으로 악물고 있는 경우 보조장치를 통해 이를 교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 치과 최연조 교수

진료예약 | 1577-0083, 치과 외래 | 02)920-5423

마음의 병도 어루만질 수 있는 곳으로!!

[친절칼럼]

평소 TV 프로그램에서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병원과 관련된 소식이건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이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병원 근무자로 일하는 고대병원 가족 모두가 마찬가지일 일 것이다. 얼마 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 KBS 인간극장에서 나온 한 가족의 일상 속 찝찝한 에피소드가 저의 가슴에 와 닿았다. 위로는 고등학교 3학년 아들부터 한 살도 안된 막내까지 모두 아들만 다섯 형제가 부모님과 살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막내를 등에 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씩씩하게, 약간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섯 아들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슈퍼맨 같은 아이들의 엄마가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싶었지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갑상선의 작은 혹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섯 아들을 둔 슈퍼맨 엄마는 힘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뒤돌아서서 흐느끼며 함께 병원에 간 남편에게 너무 무섭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병원은 병원을 찾은 내원객에게 그런 곳이었다. 아들 다섯을 낳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도 힘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곳 말이다. 매일 병원에 출퇴근 하고, 매일 몇 십 몇 백 명의 중증환자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고객을 향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매일 보는 환자 한분 한분이 몸이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올 때,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올 때, 저런 두려운 마음이겠구나 생각하니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더 살갑게 응대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한 아름다운 여인들도 대회 막바지로 갈수록 웃는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지듯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도 한결같이 웃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병원을 찾았을까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응대한다면 지치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고대 안암병원 친절리더에서는 지칠 때 옆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동료로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 월 정기적인 친절조회를 통하여 고객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응대하기 위한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아픈 곳은 물론 마음의 병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곳 이기도 하다. 

글 | 원무팀 권현경(친절리더 4기)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와 함께 날리세요!

[친절리더]



친절리더팀(팀장 김미숙, 수간호사)이 병원을 찾는 택시기사들에게 무더위를 날릴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친절리더팀은 7월 18일(월) 현관에서 내원객을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 택시기사들에게 피로회복제 1,000개를 전달하며 인사를 건넸다.

한 내원객을 태우고 병원까지 온 김을식(53, 남) 운전기사는 “덥고 짜증나기 쉬운 날씨인데, 뜻밖의 피로회복제를 받으니 기분이 좋다”며 “병원을 찾는 손님들을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화로 배우는 심장질환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의 '가슴이 아파요' II. 스트레스

자랑스런 한류스타 K. 당당한 실력파 가수로 아시아를 석권한 국보급 가수지만, K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여기저기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그러던 중 연습 때 가슴이 조이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자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은 점심이 탈이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료예약 | 1577-0083, 외래 | 02)920-6855



<스트레스는 어떻게 심혈관에 영향을 주나?>

1.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조직과 부신피질은 자동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이런 과정 중 심장 박동의 증가와 혈압의 상승은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2.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액 내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동맥 벽에 침착하게 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또 분비된 아드레날린은 혈류의 저항을 일으켜 고혈압을 유발한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혈액 응고력 증가는 정상 혈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좁아진 동맥혈관에서는 혈전을 유발해 완전히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1년 07월 07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문 진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문 진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928	류 호 상	화,목	화,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목	수	소아심장, 신생아		
	김 장 덕	수	월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박 상 희	화,수,금	수	소아 소화기, 청소년질환		
	염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이 광 철	월,목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암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정 지 태	화,금	월,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이 훈 식	월,화,목,토	토	담석, 담도암, 췌장염, 췌장암, 위장관질환		이 기 형	월,목,토	월,수	소아내분비(저신장, 갑상선, 당뇨, 비만)목오전:2,4주만, 토오전:2째주만		
	진 윤 태	수,금	화,수	위장관암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 영 일	월,수	화,금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김 용 라	월	수,목	위장관암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장 기 영	월	화,금	소아심장		
	김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암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 은 희	토	월,목,금	미숙아, 신생아 질환(토오전:4째주만)		
	김 진 동	월,목	월,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남 효 경	금,토	화	소아내분비(토오전:1,3째주만)		
	김 은 희	목	목	위장관질환		일 반 의	수	수,금	소아청소년질환		
김 희 순	화	화	위장관질환	일 반 의	화,목	화,목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내과 3층 ☎6852	김 형 규	월,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박 상 희 (수 오후)	화	수	청소년, 소화기질환		
	조 권 용	수,금	월,수	고혈압, 신장질환		이 기 형 (2째주 화 오후)	수	수	소아비만, (수 오후) 소아내분비-저신장, 당뇨, 갑상선, 소아비만		
	조 성 경	목,토	수,목	고혈압, 신장질환		장 기 영 (월 오후)	수	수	소아심장-심장초음파 검사		
	최 해 민	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윤 소 희 (목 오후-격주)	수	수	소아심장-심장초음파 검사		
	조 은 정	화	화,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 영 은 (수 오후-격주)	수	수	소아신경생리		
	이 재 원	금	금	고혈압, 신장질환		이 은 희 (목 오후-격주)	수	수	미숙아, 신생아클리닉		
	김 민 자	수,금	월	간질환, 췌장질환, 열병클리닉, 열병클리닉		유방, 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배 정 연	월,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양클리닉(월,목:오전)	
	손 장 욱	월,목	화	간질환, 췌장질환, 열병클리닉, 열병클리닉			이 은 속	월,수	수	유방암 및 유방질환/유방암 성형클리닉(수:오후)	
	김 시 현	화	목	간질환, 췌장질환, 열병클리닉, 열병클리닉			김 훈 업	화,금	금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화:오전)	
	윤 영 경	수,금	수,금	간질환, 췌장질환, 열병클리닉, 열병클리닉			이 해 운	목	목	유방 및 갑상선 질환	
혈액	박 용	화,수,목	화	빈혈, 자반증(염)클리닉	김 효 배		수	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지 중 대	목,금	월,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안과 2층 ☎5520		김 호 명	화,목	화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오 재 령			월,수,금	수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자란		
내과 일반의	김 동 섭	화,목,금	목	내분비			유 정 권	수,금	월,화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김 신 곤	월,수	화,수	내분비			서 영 우	월,화	목	사시, 약시, 안성형	
내분비센터 3층 ☎5421	김 회 영	화,수	월,수	내분비			강 수 연	금	화,수	백내장, 각막, 근시교정	
	김 회 영	화,수	월,수	내분비		양 선 모	월,수	월,수	망막 클리닉, 유리체		
	김 윤 정	금	화	내분비		일 반 의	화,수,금	화,수,금	안과 일반학		
	김 영 진	금	금	내분비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수,금	금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김 열 훈	수	월,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오 경 준	화,수,금	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신 상 원	목,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김 양 현	화,수,목	수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료, 건강상담	
	김 경 화	월,화,금	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김 민 지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박 경 용	월	수,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정신과 2층 ☎5505		이 민 수	월,수,금	수	우울증, 치매, 정신분열증	
	이 세 련	금	목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김 린	화,목	월,화,목	수면장애, 적응장애, 정신분열증	
	김 승 태	화,금	화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함 병 주	월,화,목	목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최 윤 지	목	목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혈액질환	이 현 정			화,수,목	화	조울증, 수면장애, 정신분열증		
방사선종양 학과	김 철 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이 화 영	토	화,목,금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관련장애, 치매(토-2,4주)	
	박 영 제	화,수	월,화,수,금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윤 호 경	금,토	수,목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토-1,3주)	
소아청소년과	이 광 철	화	소아혈액종양	일 반 의		토	월,수,금	일반정신의학			
정형외과	박 종 훈	수	종양	신경과 2층 ☎5510		박 건 우	목	월,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토:초진진료)		
암항자 정신 건강 클리닉	이 화 영	수	우울, 조울증, 스트레스 관련장애			김 병 조	월,수,목	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목:오전:초진진료)		
심혈관센터 4층 ☎6855	심 안 주	월,목	화,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유 성 옥	월,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김 영 훈	화,금	화,금		부정맥, 심박동기조율제동기	이 찬 념	수,금	목	신경과질환, 뇌졸중, 기억장애		
	임 도 선	월~금	월		심혈관중재시술(월~금 8:30-10:30: 흉통 초진클리닉)	장 재 훈	토	월,화,금	신경과질환,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임 상 인	수,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조율제동기(수요일은 초진만)	일 반 의	화,수,금	수,금	신경과질환		
	홍 순 준	수,금	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	산부인과 2층 ☎5450	이 규 안	수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박 성 미	화,금,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은초진만-격주)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최 철 인	월,화,토	목		부정맥, 심박동기조율제동기, 심장성근사, 심신(월,금: 8:15분, 토요일은초진만)		김 영 태	화	월	탈자궁, 유전질환, 내시경수술	
	최 철 인	월,화,토	목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금,토:대동맥, 경동맥, 말초혈관(토요일은초진만)		김 탁	월	화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박 재 형	화,금	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송 재 윤		월,금	수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반 지 은	수,금	수,금	소아부정맥	안 기 훈		수,목	목,금	탈자궁, 일반산부인과		
김 재 성	목	월,화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이 상 훈	화,금		목	부인암, 종양생식보존(암항자수정만, 난자, 난소동결&이식)			
김 예 민	금	수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김 민 우	화,금		화,금	산과			
홍 부	정 재 순	월	홍부대동맥, 경동맥, 말초혈관	산부인과클리닉: 이규안(월 오후, 수 오전), 김선행(월~금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김영태(월 오후, 화 오전), 김택(월 오전, 화 오후), 송재윤(월~금 오전, 수 오후), 안기훈(목 중일, 금 오후), 이상훈(화~금 오전, 목 오후), 김민우(화 오후, 금 오후)							
이식혈관 특수클리닉	박 관 태	화	말초혈관질환, 대동맥류, 경동맥류	피부과 2층 ☎5470	계 영 철		월,화,목,금	수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호흡기 ☎6929	유 세 화	월,수,목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서 수 흥	수,토	월,수,금	피부암, 백반증(토오전:첫째주만)		
	인 광 호	월,수,목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최 재 은	월,금,토	화,목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토오전:둘째주만)		
	이 상 업	화,금	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일 반 의	토	월,수,금	일반피부과(토오전:셋째, 넷째주만)		
	이 순 주	월,화,목,금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비뇨기과 2층 ☎5530	김 재 중	수,금	수	남성과학, 불임	
	이 승 현	토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이 정 구	월,목	월	폐노장, 오실금	
	김 광 택	화	목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천 석 호	화,목	화,목	종양학(로봇-복강경수술)	
	신 경 영	목,금	화		심장, 혈관외과, 인공심장		강 성 구	화,목	화,목	일반비뇨기과	
	이 성 용	화	화		흉곽기형, 폐, 식도질환, 하지정맥류		장 훈 아	금	금	일반비뇨기과	
	손 호 성	목	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일 반 의	화,금	화,금	일반비뇨기과	
	정 재 승	수	월,금	대동맥, 관상동맥, 말초혈관질환, 심장판막(월:오후-심혈관센터)	재활의학과 2층 ☎6854		권 희 규	월,수,금	수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조 중 호	수	월,수	일반흉부질환	강 윤 규			화	월,목	통증, 관절염		
외과 3층 ☎5401	김 중 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이 상 현	목	화,수	어깨통증, 척추디스크, 관절염	
	박 성 수	화	목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편 성 범	수,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이 동 우	금	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김 리 나	월	목,금	스포츠의학, 족부, 족관절증, 건관절증		
	위장관	김 영 철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류 병 주	금	월,수	암환자재활, 심장재활, 장애평가	
		서 성 옥	월,수	화		간, 담도, 췌장질환	일 반 의	화,금	금	건관절증, 경부통증, 요통	
	간담배	김 동 식	금	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권 중 진	월,금	화	구강외과	
		유 영 동	수,금	수,금		간, 담도, 췌장질환	임 용 규	월,수	월,수,목	교정과	
	대장항문	김 선 한	월,수	월,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전 경 아	월,화,목	월,목,금	보청과	
		김 진 화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최 연 조	월,화,목,금	월,화,수,목	보청과		
	이식혈관 소아외과	조 재 승	금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전 상 호	월,화,수,금	월,화,수,금	구강외과		
박 세 진		수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이 창 석	수,금	수,금	치주과			
정형외과 3층 ☎6853	부 운 정	화,목	목	정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김 예 진	월,화,수,토	월,수,금	교정과(토요일 격주진료)			
	흉부외과 ☎5436	채 인 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염, 척추	이비인후과 2층 ☎6851	이 상 학	월,목	월	알레르기, 후각, 코성형, 부비동염, 비부비동 종양	
		이 순 혁	수,금	월	소아정형외과, 시지연장술, 족부 골오전:1,3,5주(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족부변형) 2,4주(고관절이형증, 초음파클리닉)		김 태 훈	화,금	화	코성형, 알레르기, 축농증수술, 비부비동 종양	
		박 중 용	금	목	수부, 미세수술		박 세 진	수,목,금	수,목,금	비과, 일반이비인후과	
		한 승 범	월,목	목	인공관절, 인공고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귀 어지럼증	정 학 현	목	월,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박 중 훈	화	화	종양, 외상			장 지 원	월,수	수,금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
		정 응 고	월,금	금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		두경부 갑상선	정 공 용	화,목	목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
		박 시 영	수	월,수	척추, 외상			배 승 국	수,토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
		이 대 호	화,토	목	무릎, 스포츠의학		일 반 의	월	화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	
		전 우 주	수,금	수,금	수부 및 미세 재건 외상, 정형외과 일반		이비인후과 클리닉	정 광 용 (목 오전)	화	화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
신경외과 3층 ☎6927		서 중 근	화,목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김 태 훈 (화 중일)	화	화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
	정 용 구	수,목	화	뇌종양, 척추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장 지 원 (수 중일)	수		수	어지럼 클리닉		
	박 정 울	금	금	통증외과, 척추질환, 간질 및 운동장애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 남 준		월,수,금	금	뇌혈관중재술 및 뇌동맥류 중재시술	
	조 태 형	월,수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줄기세포치료		김 윤 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테번시술	
	강 신 혁	화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인면경련		조 성 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테번시술	
	이 장 보	화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해의학과 2층		천 기 정	월	월	종양해의학, 방사선종양치료
	박 동 혁	금	월,수	뇌혈관질환, 인면경련, 삼차신경통, 두부외상				장 성 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안 덕 선	월	목	손저림증, 화학박피				이 해 원	수	수	통증관리
	김 승 하	화	화	소아기형, 인면마비, 레이저박피, 미용성형				박 지 용	수,토	화,금	통증관리
	이 병 일	월,수	화	미용성형, 인면재건, 유방, 미세수술			민 상 훈	수	수	통증관리	
정 순 일	화,목	화,목	외상	외국인진료센터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일 반 의	화,수,목,금	월~금	일반재건성형				통합의학센터	이 성 재	화,금	수,목	상장건강, 뇌정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영안건강, 만성통증클리닉,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